



강화투데이

발행인 신봉기 | 편집인 최벽하 | 인쇄인 서석준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 T. 032)933-1080 F. 032)933-1082 2021년 10월 20일 2호

유천호 강화군수,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에 현안사업 지원 건의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전 구간 착공 건의 / 평화·안보 상징 화개정원 조성사업 지원요청



유천호 군수 - 이준석 대표 회동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 14일 ‘영종~강화 평화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강화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국제 관광산업의 발전 및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영종~강화 평화도로’ 1공구(영종도~신도)의 종료와 함께 2공구(신도~강화도)가 연속 착공될 수 있도록 서해남북 평화도로 전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교동도 화개산의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화개정원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중삼중 축쇄 규제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1995년도에 인천시로 편입되었으나 아직도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왕래가 가능하다”며 “‘영종~강화 평화도로’는 강화군을 통해 전세계로 통하는 인천국제공항과 북녘땅의 개성·해주 그리고 평양을 연결해 남북교류협력에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인천시 편입이후에 아직도 월경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연륙교를 확보하는 것은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배준영 의원과 함께 대선 후보와 상의해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

인천 ~ 강화간 왕복 4차선 도로확장 본격화!

인천 서구 거침도~김포 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10월 착공 / 전체 사업구간 6.47km 중 2.42km 우선 착공 /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자전거도로도 조성



도로개설공사 현황도

인천 강화도 주민의 숙원인 서구 거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가 본격화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거침도에서 김포 약암리(초지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인천~강화 간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는데 왕복2차선 도로로 인한 교통 체증에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2017년 김포시와 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금년 8월 수도권매립지구간 매립목적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0월 1일 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달 중 착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구간 6.47km 중 2017년 김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관할하는 수도권매립지 2.42km 구간을 우선 착공한다. 나머지 구간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2년 상반기 중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인천~강화 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자전거도로도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도로 개설이 완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경인아라뱃길에서 강화까지 갈 수 있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시민들의 여가생활에도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1]

영종~신도 연도교, 10월 5일부터 공사 시작

지난 1월 착공 후, 유관기관 인허가 행정절차 완료하고 본격 공사 착수 도서 지역 접근성 개선균형발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등 효과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영종~신도 구간) 공사를 10월 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는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으로 서해연안지역의 인적·물적 물류 체계 확보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1월 착공식 이후 우선 시공 분(현장 및 감리 사무실)과 동시에 군부대 협의·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인허가 행정절차(2021년 6~9월)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영종~신도 구간(1단계 2020~2025년)과 신도~강화 구간(2단계 2025~2030년) 공사가 2단계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전상배 시 도서지원과장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가 건설되면 접경·도서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한반도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강화농협 종합시설 완공 후 역대급 실적 예상

강화농협 종합시설 설립을 통한 사업부문 간 시너지 효과 수익 극대화를 통한 조합원 환원 사업과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 운영



이 한 훈
강화농협 조합장

강화농협은 지난 2020년 10월 하나로마트 신규건물 이전부터 동년 12월 영농센터 이전, 2021년 2월 주유소 신설까지 종합시설 건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강화농협 종합시설은 예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 업무와 생필품, 영농자재 및 유류 구매 등의 경제사업 업무를 원스탑(One Stop) 처리하여 각 사업부문 간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다.

강화농협은 현재 이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신용사업 규모는 나날이 성장중이다. 9월30일 현재 전년 동기 기준 상호금융 예수금은 4.69% 성장한 3,713억, 상호금융대출금은 13.45% 성장한 3,259억을 기록했다. 경제사업 또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전년 동기 기준 매출이 41.86% 성장한 333억을 기록하였고, 특히 하나로마트는 일 평균 객수가 27.5%(2,279명) 증가하였고, 매출액 또한 23.85% 성장을 기록하는 중이다. 신규사업인 주유소 또한 일평균 주유대수 400대를 기록하며, 순항중에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 확장은 조합원 환원사업 및 배당금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강화농협은 올해 영농지원사업을 필두로한 교육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며 전년도 약6억 증가편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환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에 필수적인 자재 구매 대금에 대

해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노력하였고, 조합원 건강 검진,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미리 소금을 대량 구입하려는 가수요가 발생하였고, 금년 초 잦은 비로 인해 소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면서 소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조합원님들께서 소금(20kg) 2포씩 추가에 산 편성하여 <일억칠천팔백만원 7,200포> 전달 하였다.

이처럼 이한훈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 모아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코로나로 힘든 현 상황에서 사업 수익 극대화와 조합원 환원사업의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강화농협이 전국 농협 사업 지표에서 부문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한훈 조합장은 “강화농협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순항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결속력과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에 함께하는 강화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화농협은 급변하는 정세에서도 신용사업과 더불어 경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이 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조합원 및 고객분들께 한결같은 사랑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농촌과 농업을 이끌어 갈 협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 최백하 기자



유천호 군수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강화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

강화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민선 7기 군정 성공적 마무리 /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회복 주력



▲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회(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군수실에서 민선 7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서별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회에서는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화계 지방정원 조성 ▲행복센터 건립 ▲갑룡(2단계)·남산·관청·북산 공원 조성 ▲어촌뉴딜 및 남산마을 뉴딜사업 ▲재활용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확대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첨단 미래 관광 콘텐츠 구축 ▲비대면 헬스케어 경로당 조성 ▲ICT 활용 스마트농업 육성 ▲전문체험시설 조성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등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이 논의 됐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2022년도 예산반영과 함께 지역 발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민선 7기 94개 공약사항 중 완료 72건, 정상추진 13건, 장기추진 9건으로 전체 이행률은 88%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기추진사업 9건을 제외한 85개 사업은 군수 임기 내에 완료되며,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2022년도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뛰어 달라”며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강화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

유천호 군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강조

부서별 현안사업 점검, 군민 눈높이 행정 당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3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부서별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전군민 독감예방주사 등 방역대책과 창업일자리센터 사업보고 등을 겸한 자리였다.



▲ 23일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사진제공 강화군)

유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상황별로 잘 대처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청년 창업과 청·장년 맞춤형훈련을 지원해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기회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에 불어넣을 것을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강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며 “적극 행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신규 시책 발굴 강조”

10월 중 확대간부 회의 개최, 각종 지역현황 점검

유천호 강화군수는 6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중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서별 하반기 신속집행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원도심 열린관광환경 및 야간 경관조명 조성사업, ▲해누리공원 조성사업,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 ▲강화대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 ▲강화고려인삼 판매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해 개선과 보완 사항을 공유했다.

유 군수는 “올해도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신규시책, 지역 균형발전, 생활밀착형 SOC사업, 메타버스 관광 콘텐츠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경제회복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행정과_간부회의 []



확대 간부회의(사진제공 강화군)

군민과 함께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노후·위험 시설 47개소 집중 점검 / ‘자가안전점검’참여 당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유관기관, 안전단체, 민간전문가와 현장 중심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노후 위험시설 점검과 체계적인 이력 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군은 건축, 야영장, 여항, 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47개소를 우선 선정해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구)강화대교, 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시설은 사용제한, 사용금지, 긴급 안전조치 후 즉시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군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직접 자가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해 안전점검표가 배포된다. 군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며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등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강화군청 전경(사진제공 강화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회장 최금자)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16시 강화군청에서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출범식은 배기찬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민주평통 자문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배기찬 사무처장이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은 선서를 통해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제20기 민주평통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활동 목표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문활동,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여성과 청년의 역할,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 4개 활동방향을 설정해 2년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9기에 이어 20기에 연임된 최금자 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민주평통 강화군협의

회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평화통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기반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자문위원 등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92조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그동안 각종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강화군, 강화섬 쌀 적기수확 및 수확 후 마무리 철저 당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기수확, 적정온도로 건조해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품질 강화섬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벼 적기수확과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재배농가에 당부했다. 강화도에는 농업인의 노고 속에 올 여름 가뭄, 폭염 등의 어려운 기상 여건을 이겨낸 '고품질 강화섬 쌀'이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군은 쌀맛을 좌우하는 벼 적기수확과 수확 후 관리요령에 대해 기술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벼 수확적기는 육안으로 보기에 벼 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이며, 삼광, 참드림, 추청 등 중만생종은 이삭이 나온 후 55일 전후가 알맞다. 조기 수확할 경우에는 푸른색 쌀, 광택이 없는 쌀이 많아지고, 수확이 늦으면 금간 쌀과 싸라기가 많이 생겨 도정률이 떨어진다. 또한, 미질도 떨어져 밥맛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 도복 된 벼는 조기 수확해야 수발아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밥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확한 벼를 적정 수분함량인 15% 내외로 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벼 건조작업은 수분함량이 20% 이상일 경우 8시간 이내, 수분함량이 26% 이상인 경우는 변질이 빨라지므로 4~5시간 이내 건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강화섬 쌀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려면 적기수확 및 수확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

강화군, '2021년도 하반기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대폭 확대 지원

이달 26일까지 접수, 셋째 70%, 넷째 이상은 100% 등록금 지원 유천호 군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최선"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1년도 하반기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군은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일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질 납부액 중 셋째 자녀의 등록금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넷째 이상 자녀 등록금은 80%에서 100%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12일부터 26일까지 강화군 자치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1년 1월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학생·학부모 모두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거나 강화군 자치교육과(☎032-930-33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72실 규모의 제1장학관을 개관한데 이어 지난 2019년부터는 서울시 중구에 58실 규모의 제2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운 다자녀 가계 경제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화를 이끌어갈 동량지재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정책을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선별진료소 시간 변경 안내

강화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변경]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 ~ 13:00

※ 종식 시간 12:00 ~ 13:00

강화군민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1. 접종대상 : 생후 6개월 이후 강화군민(주민등록상)
2. 접종일 준비물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대성년자)
3. 65세 이상 사전예약
- 인터넷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
- 콜센터(1339 및 지자체음연 콜센터), 보호자 대리예약 등
4. 접종대상별 접종 기간 및 접종기관

접종 대상	접종종류	접종기간	접종기관
생후 6개월~만 1세 미만 (098.1.1 ~ 201.8.31생)	1회 접종	2021. 4. 30. 까지	보건복지포럼기관 (내사제 보건소)
만 1세~만 4세 미만(만 4세 미만)	2회 접종	2021. 10. 31. ~ 2022. 2. 28.	보건복지포럼기관 (내사제 보건소)
만 5세~만 14세 미만(만 5세~만 14세 미만)	1회 접종	2021. 4. 30. 까지	보건복지포럼기관 (내사제 보건소)
만 15~만 64세 미만(만 15~만 64세 미만)	1회 접종	2021. 10. 31. ~ 2022. 2. 28.	보건복지포럼기관 (내사제 보건소)
만 65세 이상(만 65세 이상)	1회 접종	2021. 10. 31. ~ 2022. 2. 28.	보건복지포럼기관 (내사제 보건소)
만 65세 이상(만 65세 이상)	1회 접종	2021. 10. 31. ~ 2022. 2. 28.	보건복지포럼기관 (내사제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소에서 접종 시 접종 일정과 대상자를 꼭 확인 후 방문

강화군, 바다관문 초지항과 여객선 기항지 아차·하리항에 활력 불어 넣는다

사업비 21억 원 추가 확보, 총 사업비 106억 원 투입 / 정주여건 향상, 어촌·어항 인프라 대폭 개선

강화도의 바다관문 초지항과 여객선 기항지 아차·하리항이 매력적이고 접근하고 좋은 어항·어촌으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인 길상면 초지항과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 대상지인 아차항·하리항이 해안수산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 사업비 106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초지항과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 대상지로 아차항·하리항이 선정돼 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사업계획에 반영 국비확보에 총력전으로 나서 공모 선정 사업비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06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초지항에는 2023년까지 어항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선착장 연장, 방파제 신설, 초지광장 조성, 주민 쉼터 조성 및 경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매력적인 어항이 조성된다. 또한, 아차항·하리항은 무너진 물양장을 복구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을 채택해 여객선 기항지로 어항의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유천호 군수는 "어촌뉴딜사업들을 통해 도서지역과 어촌·어항의 해양생태관광을 강화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도서지역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화도면 후포항은 '밴댕이 특화마을'로 지난 16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공했으며, 지난해 어촌뉴딜사업 선정된 향산도항·창후항은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해 어업기반 시설, 지역특화 및 주민 역량강화 등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군, 갑룡 어린이공원 조성 본격화

2022년도 3월 개장, 7,051㎡ 규모 58억 원 투입



산림공원과 갑룡어린이 공원 주민설명회 (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기존 '갑룡 공원'을 확장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갑룡 어린이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군은 기존 갑룡공원 인접 7,051㎡ 부지에 사업비 58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휴게공간, 녹색공간을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어린이들의 설문 결과를 반영해 놀이공간에는 그물놀이, 6인용 그네, 경사오름 등이 설치되고, 휴게공간에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미러폰드와 다양한 형태의 휴게시설이 들어선다.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위한 전용 놀이공간도 마련된다. 녹색공간에는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등이 설치된다.

한편, 갑룡공원은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갑곶리 441-1번지 일대 12,154㎡ 규모로 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개장했다. 문화광장, 야외스탠드, 물놀이 놀이터, 산수원 폭포, 다목적 운동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늘 푸른 소나무, 버드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을 충분히 식재해 숲 속 정원에서 군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유천호 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정서적 풍요로움을 느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어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 도시공원을 더욱 확충해 정주여건 향상과 건강 증진 등 군민의 복지수익을 한층높여 나겠다"고 말했다.



산림공원과 갑룡 어린이 공원 조감도(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생활·문화 공간으로 신축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등 갖춰, 주민편의시설 대폭 확충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기공식 (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추는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이 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신득상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장기천 군노인회장, 길상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개최됐다. '길상면 주민복합센터'는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운수리 480-7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4,722㎡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78㎡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 내에는 주민센터, 회의실,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연두방문 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채택된 본 사업은 면청사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와 주민 여가 및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설계 공모를 실시해 토지활용과 공간계획이 우수하고, 이동동선과 특화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건축설계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 7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BF, VE, 에너지효율등급, 설계안전성(DFS),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등을 받았다. 유천호 군수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길상면은 남부권역 대표적 주거 지역임에도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했다"며 "주민복합센터를 문화·복지·행정이 어우러진 주민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신득상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장기천 군노인회장, 길상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기공식 현장(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 태평성대 기원 제4353주년 개천대제 개최

행사시간 참석단 출입 제한, 무관중 개최 / 개국 정기받은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내달 3일 개천절을 맞아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4353주년 개천대제 봉행'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식'을 개최한다. 강화군은 1955년 제36회 전국체전의 성화 채화를 계기로 의례가 다시 행해지면서 개천대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천절에 제천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경전, 제기, 복식, 음악, 무용, 성화채화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상북도에 성화를 인계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장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행사 시간에는 관계자 외 참석단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무관중으로 본 행사를 개최해 아쉽다"며 "개국의 역사가 깃든 참성단의 개천대제 행사를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천대제 및 성화채화(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 제4353주년 개천대제 성료

코로나19 종식, 남북평화 및 태평성대 기원 마니산 정기 받아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병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일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4353주년 개천대제 봉행'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개천대제 제례의식에 직접 참여해 코로나19 종식, 남북평화와 태평성대를 기원했다. 이어 칠선녀는 성무와 함께 성화를 채화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상북도에 성화를 인계했고 전국체육대회 동안 성화대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한편, 참석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린 제단으로 지금은 해마다 개천절에 제천대제가 거행되며, 전국체전의 성화도 이곳에서 채화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행사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개천대제와 성화 봉송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전통, 인류애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7]

강화군, <2021년도 군민의 날 기념 제78회 체육대회> 미개최

군민 안전 최우선, 생활체육 저변 확대 전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강화군민의 날 기념 제78회 강화군체육대회'를 미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체육회 권영택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 미개최에 대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체육대회 미개최 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한편, 군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로 편성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재편성해 사용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의 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체육시설 폐쇄 및 운영 제한 등으로 생활체육계

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도 고려해야겠지만,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동네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체육회 권영택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사진제공 강화군)

강화 10월애 자동차극장
상영일자 및 상영작

10/30(토)	10/31(일)	11/6(토)	11/7(일)
코다 (12세 관람가)	싱크홀 (12세 관람가)	코다 (12세 관람가)	싱크홀 (12세 관람가)

■ 상영 장소 : 전정박물관 주차장(강화읍 갑곶리 225-10번지)
 ■ 상영 시간 : 19시 ~ 21시
 * 입장시간(현장도착) : 18시 30분 ~ 18시 50분
 ■ 관람 대수 : 1일 90대
 ■ 관 료 : 무료

신청방법(예약에 의한 선착순 접수)

■ 예약 안내

구분	상영일	예약기간	예약확정 안내
1차	10.30./10.31.	10.20(수)~10.22(금)	10.26(화)
2차	11.6./11.7.	10.27(수)~10.29(금)	11.2(화)

* 1인당 1편으로 신청 및 관람을 제한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 예약 방법

1. 휴대폰 문자 접수 ☎010-8438-5561
2. 접수 양식 : 영화명(관람일자), 예약자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3. 유선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32)930-3625

유의사항

- 모든 관람객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 우선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 전 시민 대상 '인천형 지원' 적극 추진

- 정부 방침 발맞춰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인천형 일상회복' 추진
- 예방접종 목표 달성 및 단계별 일상회복 맞춘 지원금·소상공인 추가지원 골자
- 구체적 지원 방법 등은 논의 거쳐 내달 중 세부 내용 발표 예정



박남춘 인천시장이 21.1. 20.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단계별 방역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시 재정을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금과 함께 일부 방역 완화 조치 등 '인천형 일상회복'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0월 6일 개최한 제27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코로나19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해제 전 검사 선제적 실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총 3회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인천형 방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온 국민이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동시에 침체된 경제 활력을 다시 끌어올려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피력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전 인천시민 지원금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우리 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가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인천형 맞춤형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을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박 시장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올해만 현재까지 1조 4,256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해 9,161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e음 10% 캐시백 지원, 집합금지·제한·해제 업종 긴급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문화·관광·운수 등 취약업종 지원,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재산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총 5,104억 원 규모의 시 자체 사업도 추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세수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약 5천억 원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세출규모가 2천억 원 정도로 전망됨에 따라 약 3천억 원의 가용재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인천시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책도 모색한 뒤, 11월 중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결과, 재원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인천형 방역'에 버금가는 '인천형 지원'을 추진해 인천을 가장 모범적인 방역과 일상의 조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본격화 공사' 착공

2,500만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

- 9월말 박물관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절차 완료
- 10월 중순부터 기초공사 시작, 올 11월 착공식 예정
- 전시 컨셉"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으로 장구(長久)한 해양스토리 담을 것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공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체험 및 교육 인프라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사 발주절차(해양수산부)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9월말 박물관 건립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착공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은 인천에 제대로 된 해양문화 시설이 없다는 인식 하에 2002년부터 시작된 인천시 대표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 신청,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 오랜 기간의 시민 참여와 유치 노력이 담긴 숙원 사업이다. 2017년 박물관 건립 방침 수립, 부지매입 및 예타 신청을 통해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건축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근 2021년 9월말 착공을 통해 인천시와 시민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건축공사에서는 각 전문공사법에 따른 전기·통신·소방 외에 건축·토목 분야를 포함한 모든 공정의 착공 절차를 지난 9월 28일 완료했으며, 해수부 현장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현장 가림막 설치 및 기초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전시 컨셉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으로 「해양교류사실」(바다의 역사), 「해운항만실」(항만 및 물류의 가치), 「해양문화실」(어촌 및 해운항만 현장의 생활상)로 구분해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해운·항만의 변화와 발전사, 서해안의 특성이 담긴 해양민속, 영흥도선·대부도선 등 고선박 등이 전시 내용에 포함되어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장구(長久)한 해양스토리를 담은 연구와 보존, 전시, 교육의 산실(産室)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박물관 건립사업의 본격 착공을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인천시장, 해수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식'을 올 11월에 개최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최근 9월말 착공되어 그동안 해양문화 시설 건립을 염원한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항이 실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립될 인천의 해양박물관이 수도권 2,500만 시민의 해양교육·문화 거점으로 정착되고 또한 해양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업해 내실 있는 해양문화 콘텐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원 부지 27,601㎡에 건축면적 17,318㎡ 및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인천 소통을 논하다!

민선7기, 시민시장 시대, 소통정책 집중 토론 / '새로워진 인천 수돗물'이름은 "인천 하늘수!" 시민이 정했다!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21년 상반기 토론회 우수제안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4일, '인천은 소통이 가득, 소통정책에 대한 시민시장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민선7기, 7번째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가 유지되면서 인천사랑에 야외 스튜디오를 차리고, 100% 온라인 토론방식으로 장용, 오유민 시민 홍보대사가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 수돗물' 새 이름을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시민 공모전의 투표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공향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란 의미로 제안된 '인천 하늘수'가 온라인 및 현장 투표 38.77%, 그리고 시민시장 대토론회 35.16%의 득표를 얻어 합산 36.97%의 최종득표율로 '인천 수돗물'의 새 이름으로 선정됐다. 이후 '인천은 소통이 가득'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소통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소통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할 것을 기대했는데,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아쉬웠다"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행정기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통방식과 변화에 적응해 가야한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달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어통역과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1]

인천시,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정책 집중 논의

8일,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개최 일자리 분야 역점사업 운영성과 및 주요 현안 공유, 신규 7개 안건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민원기 한국육육주립대학교 총장)의 제3차 정기회의를 10월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공항경제권 산업 및 고용 실태조사 수행'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간의 분과위원회 운영 성과를 비롯해 주요 일자리와 경제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7개 안건 : ▲인천공항경제권 산업 및 고용 실태조사 수행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종로 대비 공항일자리 채용 지원 ▲인천 소공인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인천 청년 로컬 라이저 육성 및 지원 추진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 또한, '인천e음 플랫폼 고도화 및 배달e음 활성화', '2025 인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등 인천의 일자리분야 역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과거 결제 중심의 인천e음 플랫폼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배달e음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방침이며, 일자리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지역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근의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안건 심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졌다.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은 올해 사업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인천시 각 소관부서에서는 2022년 본예산부터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차 정기회의 이후,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취약계층에 집중해 의제를 선정하고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의제를 구체화했다.

민원기 공동위원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업을 발굴해 주신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부서에 감사하다"면서, "일자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시의 동반



2021. 10. 08(금)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사진제공 인천시)

자이자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기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시민, 전문가 등의 민간위원들을 주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주요의제의 점검 및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도개선 등 중장기 발굴과제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한반도 평화관광 랜드마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

'서해, 조강, 한강, 북녘' 파노라마 경관을 한 눈에 연말까지 무료관람...인터넷 사전예약 후 방문해야



한반도 평화관광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드디어 공식 개관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2003년 시설개선 계획으로 출발해 2011년 공원조성을 결정하고 2016년 설계공모를 거쳐 2017년 착공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화생태전시관에서는 평화, 생태, 미래를 주제로 영상과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만월대 등 고려황성 유적을 가상현실(VR) 열차를 타고 체험할 수 있다. 조강전망대에서는 서해, 조강, 한강, 북녘의 탁 트인 파노라마 뷰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4km 앞에 펼쳐진 북한 개풍군 일원의 산과 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거나 철새의 이동 등 생태환경도 관찰할 수 있다. 전시관과 전망대에서는 무인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전망대에서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전시관과 전망대를 이어주는 흔들다리와 스카이워크, 생태탐방로 등 추가로 진행 중인 소주제공원 조성공사는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포시와 김포시문화재단은 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입장료와 VR체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4단계에 따라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애기봉평화생태공원(www.aegibong.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3월~11월 하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월~2월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검문소에서 전시관으로 오르는 1.4km 구간이 데크도로로 조성되어 있어 숲길을 걷는 것도 좋다.

한편 7일 열린 개관식은 비대면 다중화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설계한 승효상 건축가는 사전 영상 인터

뷰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방문했을 때 조강이 임진강과 예성강까지 만나 서해로 흐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었다"면서 "안보시설로도 쓰이겠지만 남북을 잇는 하나의 중요한, 그리움에 관한 시설로서 위치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이어서 들어서는 시설이 자연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더 좋은 풍경을 만드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주어진 자연환경을 대단히 많이 활용해서 건축적 요소로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 나타낸 시설"이라면서 "기존의 시설 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원래 애기봉의 높이를 찾으려고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언덕 지형을 하나 만들고 규모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펼쳐지는 한강과 그 건너편 북녘의 모습이 하나의 액자에 담겨서 굉장히 잊지 못할 마음의 풍경으로 심어질 것"이라면서 "건축은 건축가가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 그 건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과 그 시간이고 우리가 방문해서 남기는 기억이 평화를 위한 그리고 평화의 결과물로서 보이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굉장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개관사에서 "서쪽 끝 강화 평화전망대로부터 동쪽 끝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10여 개의 전망대 중 DMZ가 아닌 전망대는 강화전망대와 이곳 애기봉전망대뿐"이라면서 "애기봉전망대 앞을 유유히 흐르는 한강하구 조강은 피땀을 흘리며 살다간 선조들의 삶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고 외세침략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남북분단의 상처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금은 단 한 척의 배도 자유롭게 오고 가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의 민간선박 항행이 보장된 중립수역 조강은 뱃길을 잇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과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분단의 시간 속에서도 남북의 강은 이곳 조강에서 만나 언제나 함께 서해로 향했다. 조강을 담고 남북의 바람을 품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열어갈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시장은 또 "한강하구 조강의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된 축복의 땅으로 이곳의 평화적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해 세계 유일의 평화관광지로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면서 "김포의 100년을 먹여 살릴 산업은 평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다. 김포가 평화도시를 넘어 평화가 밥이 되고 평화가 경제가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평화행동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강화 문화기행



강화박물관

분 류 : 전시관/갤러리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40
문의처 : 032-933-0605
 유구한 역사문화의 고장인 우리강화, 그중에서도 고려시대 대몽 항쟁의 근거지 고려궁지와 철종임금의 잠저인 용흥궁, 그리고 성 공회성당과 연결해 있는 강화박물관은 민족 문화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강화문화의 자존심과 굳은 절개를 보여주고 있다. 강화의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민족문화의 전통을 전시하고 있는 강화박물관은 자라나는 후세에게 문화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한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성공회강화성당

분 류 :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24호)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7번길 10

한국 최초의 한옥성당

1900년에 한옥으로 지어진 대한성공회 성당이다. 대한성공회의 초대 주교인 코르페(Corfe, C.J.)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강화성당은 서유럽의 바실리카(Basilica)양식과 동양의 불교사찰양식을 과감하게 조합시켜 건립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회의 내부공간은 바실리카양식을 따랐고, 외관 및 외부공간은 한식 목구조와 기와지붕으로 되어있는 불교사찰의 형태를 따랐다. 초기 성공회 선교사들의 토착화 의지가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성당건물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성공회 강화성당 實測調査報告書』, 문화재청,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 1997. 『韓國聖公會史概觀』, 대한성공회출판부, 1980. 김정신, 「初期 韓國聖堂建築의 土着化에 관한 研究」, 『建築士』173호, 1983.



용흥궁

분 류 : 문화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 16-1
 조선 제25대 왕인 철종(재위 1849~1863)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화유수 정기세가 건물을 새로 짓고 용흥궁이라 하였다. 용흥궁은 창덕궁의 연경당, 낙선재와 같이 살림집의 유형을 따라 지어져 소박하고 순수한 느낌이 든다. 경내에는 철종이 살았던 옛 집임을 표시하는 비석과 비각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 1997. 문화재청 홈페이지



- 최벽하 기자 (사진출처: 강화군청)

강화 원도심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강화 왕의 길 투어

참여 대상 강화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 (공직선거법상 강화군민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운영 기간 8.27~10.31. (선착순 참여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

* 운영기간은 10. 31일까지였으나, 11월 20일경까지 연장되었고, 선착순 1000명이 채워질때까지 연장되어 진행

참여 방법 강화 원도심 모바일 스탬프 투어 웹 로그인 후 관광지 6개소 인증 및 원도심 내 10,000원 이상 소비



인증 장소 6개소 (강화읍 원도심 4개소, 길상면 운수리 2개소)

완주 기념품 선착순 1,000명 (3만원 상당의 강화군 농산물+관광기념품 우편 배송)



교육의 근본은 인성교육이 답이다

매스컴이나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는 학생들의 일탈을 보면서 교육정책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학습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학생들을 이다지도 몰염치하고 통제 불가능의 문제아로 변질시키고 있는가 걱정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이 대 형
인천교총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요즘 교육정책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권과 인성이다. 혹자는 인권을 지키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권과 인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폭넓은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은 인성의 한줄기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신이 행동을 바꾼다' 인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명제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로 주로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등

이 거론되는 것은 우리의 인권에 대한 공감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반문하게 된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면서 이 작은 사회를 지탱하는 방식이 존중과 이해, 배려가 아니라 통제와 제재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한 채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소수의 일탈이 지속된다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무엇에 기대에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우리는 과연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면서 든 생각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종적인 관계가 중요시되는 사회였다. 그래서 인성적 덕목도 '효, 예, 질서' 등 종적 관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덕목들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인권은 지극히 횡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즉 '정의, 공정, 책임' 등의 덕목이 더 강조된다. 여기에서 공동체적 공감 및 합의가 미처 성숙되기도 전에 개인적인 권한만이 강조되는 선부른 인권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은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이 배제된 자유와 권리의 달콤함에 취해 이기적 개인주의에 심취하게 된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는 등의 가식적 구호가 아니라 이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적 환경이다. 이 구호들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권위적인 종적관계만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닌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따뜻한 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하다. 인권의 중요성을 나만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2호에 따르면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종적, 횡적 관계가 모두 중시되는 성숙한 사회적 공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과거에 인성교육이 사람을 통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방식을 정립해 가려는 방편으로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학교는 이런 교육의 제1선에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지지가 우리의 학교를 더욱 강건한 인성교육의 교두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곧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교육자 모두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의 시작은 인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인사가 무엇인가? 자기를 속이면서 상대를 올려주는 것이 인사가 아닌가? 요즘 학교복도에서는 인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졌다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이제 우리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보고 신고하는 정신이 아니라 남을 올려주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품성을 갖추게 한다면 우리사회의 질서는 자연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학교, 사회 등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제는 학교교육은 물론 모든 교육의 근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성교육 답이라고 생각한다. [1]

- 송기훈 기자

江華鄉校 강화향교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향교(향교)는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인륜을 밝히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이는 儒學(유학)이 지향하는 人間愛(인간애)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다운', '인간다운', 품성을 갖춘 '된 사람'을 渴願(갈원)합니다. 사람으로서 常道(상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道理(도리)가 있습니다. 소위 '五倫'입니다. 공자께서는 『論語(논어)』

[述而(술어)]편에서, "有恆者(유항자)"를 말씀하셨습니다. '恆心(항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聖人이나, 賢者, 君子는 학문을 통한 유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표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백성에 대한 公益(공익)의 항심, 부모와 자식간의 慈愛(자애)와 孝(효)에 대한 항심,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信賴(신뢰)의 항심, 친구와 친구 사이의 友情(우정)의 항심, 뒷사람과 아랫사람의 慈祥(자상)과 恭敬(공경)의 항심은 人道(인도)의 근간이며, 明倫(명륜)의 이유입니다.

儒學(유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학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팔시보다는 포용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서는 질투가 아닌 우대하여 모범을 삼는 일입니다. 타인과의 배려와 화해를 희망하는 학문입니다.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인간 사회학인 것입니다. 향교는 또한 祭享(제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儒學(유학)의 鼻祖(비조) 인류의 큰 스승인 공자를 비롯하여 참다운 학문을 時習(시습)했던 현자들과 우리나라 참선비 東國(동국) 18賢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매월 陰曆(음력) 초하루 분향례를 올리고, 봄과 가을에 두 차례 釋奠(석전)을 통해 학문의 선각자들에게 崇慕(숭모)의 의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由緒(유서) 깊은 江華鄉校(강화향교)는 고려 인종5(1127년) 개설된 지방 공립학교입니다. 향교는 중등교과 과정으로 지방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生員(생원)이나 進士(진사)를 양성하여 서울 성균관으로 입학시켜 관리로 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향교가 祭享(제향)의 공간으로 주요 활용됐습니다만, 이제 향교가 讀誦(독송)소리 낭랑히 들려오던 기억들을 소환하려 합니다. 강화향교 儒林會館(유림회관)은 골방의 곰팡내 나는 피조죄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勉學(면학)의 명소로 거듭나기에 충분합니다. '강화향교 카페' 개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어렵다는 유학의 四書經典(사서경전)을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자리매김입니다.

강화향교에서는 제향의 예를 중시하면서도 향교 본연의 역할인 人性(인성)을 위한 학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착실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방탕과 무분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법이 해체되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제 자식이 귀여운 나머지 제 자식 나쁜 버릇임에도 편애하는 부모님들의 맹목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孟子(맹자)는 [離婁章(이루장)上18] "易子而教之"(역자이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타인과 자식을 바꾸어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자식을 호되게 버릇을 고쳐 놓는다고 보다는 "責善(책선): 선을 행하라고 질책함"

을 좀 더 신중하게, 보다 책임감 있게 훈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향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강화향교에서는 매년 인성교육을 다양이 준비하고 계획, 차질 없는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박한 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고 미풍양속을 가꾸고자 腐心(부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반, 사서경전반, 서예실, 수목화반을 유명 강사를 통한 공개 강의와 학문 카페의 운영을 병행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입니다. 실추된 인간 고유의 善性(선성)을 高揚(고양)하기 위해 儒學(유학)의 정신을 발현코자 하는 바입니다. 누구보다도 잘살고 싶고, 누구보다도 출세하고 싶은 심정은 우리 사회의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답게' 인간다워야 합니다. 공자께서 "厓仁(리인; 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을 역설한 이유입니다. '강화향교 카페'의 개설은 厓仁(리인)을 건설하는 일이며, 화해하는 사회, 미풍양속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인간의 善性(선성)을 謳歌(구가)하는 일이 우리 江華鄉校(강화향교)의 力點(역점)인 것입니다. [1]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전 군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 코로나·독감 합병증 선제적 예방

만19~64세 예방접종 전액 군비 지원 유천호 군수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 일상 회복에 전력”



보건소 인플루엔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4~64세는 관내 거주자에게 군 자체 지원을 통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독감 유행과 겹쳐 확진자가 급증하면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적 방역대책이다. 대상자별 접종 일정은 생애 처음으로 접종하는 어린이(6개월~만9세 미만)는 지난 14일부터 1차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차까지 접종하고, 첫접종이 아닌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는 10월 14일부터 1회 접종한다. 임신부는 주수 상관없이 접종가능하며 임신확인을 위해 접종 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만14~18세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 희망자는 예약 및 접종일정을 확인하고 예약 후 관내 위탁의료기관(20개소)에서 접종해야 한다.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만19세~만64세 군민은 10월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무료 접종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예방접종실(☎032-930-4076)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독감 유행과 겹쳐 지역 내 확산 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백신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절기 슬기롭게 이겨내기



더위가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며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중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대상포진, 아토피성 피부염이 가을 환절기 질병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을나기를 위해 알아둬야 하는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충분한 수분보충** 성인 기준 하루 최소 1.5L(컵으로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그중 환절기에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며 밤 11시~ 새벽 3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균형잡힌 식사** 매일 정해진 시간, 균형잡힌 식사를 하며,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개인위생 관리** 환절기 감기와 비염을 예방하는 최선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한 귀가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 1. 배** 감기 환자가 배를 먹으면 기침을 가라앉히며, 배의 루테올린 성분이 기침, 가래, 기관지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화를 도와 위장을 달래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 2. 굴** 굴은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P가 풍부한 과일로 유명합니다. 그중 비타민C는 스트레스 해소,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A는 눈에 좋고, 비타민P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비타민E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 3. 대하** 대하 껍질에는 면역력을 길러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키틴과 키토산이 많습니다. 또한 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대하의 타우린 성분이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간 회복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 4. 생강차** 환절기에 가장 좋은 식품, 환절기 보약으로 알려져 있는 생강. 생강은 감기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리노바이러스를 없애고 인후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에 도움을 줘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성 천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뿐아니라 진통, 해열 효과도 있어, 감기 초기 따뜻한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박수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 (Booster shot)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정중률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이 시행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대상>	
60세이상 고령층 및 그의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시도별: 10.5.00~	시도별: 10.18.00~
접종기간: 10.25.00~	접종기간: 11.1.00~
접종장소: mRNA 백신(코오롱 2021)	접종장소: mRNA 백신(코오롱 2021)
접종기간: 위탁의료기관	접종기간: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자체 접종 대상>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대상: 11.10.01~	접종대상: 10.12.00~10.30.00
접종장소: mRNA 백신(코오롱 2021)	접종장소: 생이지 백신
접종기간: 요양병원 - 의료기관 자체접종	접종기간: 의료기관 자체접종
접종장소: 요양시설 - 방문접종	접종장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① 온라인 (누리집 ncvr.kdca.go.kr, 본인 및 대리예약 가능)
 ② 전화예약 (1339 및 지자체콜센터, 평일 9시~18시)
 ③ 주민센터 방문예약 (평일 9시~18시)
 *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위해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2021년 하반기 광견병 무료접종 안내

접종기간: 2021년 12월 12일(일) 까지

접종대상: 관내 3개월령 이상의 개 (연 1회 접종 의무, 살충기 접종 완료 시 추가 접종 불필요)

접종방법 1: 읍면별 공수의사 출장 방문 접종
* 지역별로 일정이 상이해 자세한 일정은 읍면사무소에 문의

접종방법 2: 자정 동물병원 원내 접종

광견병 예방접종 담당 병원	비고
소 속	연 락 처
대리동물병원	719-7533
베스트동물병원	934-9340
서울동물병원	533-2729
중합동물병원	934-2570
한미동물병원	533-6858
강화속동물병원	930-2641
베슬동물병원	933-9795

* 방문지역 지역과 상권영역 접종 실시
* 원내 접종 시 동물등록제 함께 권장 가능

상세한 반려동물에 대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주세요

문의: 축산과 가축방역팀 ☎032)930-4534

아프면 늦어요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

- 대부분의 암은 조기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 암으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암 검진으로 암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10월 1일부터는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예약이 무료인 무료 암검진입니다.

검진 대상

- 남자: 만 40세 이상 주민등록상 홀수년생
- 여자: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홀수년생

강화군 암 검진기관 안내 (본국 국민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가능)

기관명	일	시간	장소	대상	유료/무료	비고
강화군보건소	10-11월	09:00-12:00	보건소	남·여	무료	
대리동물병원	10-11월	09:00-12:00	대리동물병원	남·여	무료	
베스트동물병원	10-11월	09:00-12:00	베스트동물병원	남·여	무료	
서울동물병원	10-11월	09:00-12:00	서울동물병원	남·여	무료	
중합동물병원	10-11월	09:00-12:00	중합동물병원	남·여	무료	
한미동물병원	10-11월	09:00-12:00	한미동물병원	남·여	무료	
강화속동물병원	10-11월	09:00-12:00	강화속동물병원	남·여	무료	
베슬동물병원	10-11월	09:00-12:00	베슬동물병원	남·여	무료	

* 예약 관련 사항
- 만 54~74세 남녀 중 2021년 10월 1일부터는 무료 암검진 실시
- 대외암예방검진센터는 전년도 10월 10일 기준 암검진 대상자입니다. 비고: 대외암 예방검진센터는 내시경검사 시 추가 암검진(1차 검사에서 암도시 발견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 시 암치료비용 지원 가능합니다. (1차암, 2차암, 3차암, 4차암, 5차암, 6차암, 7차암)

방문: 관내기관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검진
* 암은 예방할 수 있는 암종류가 있습니다.

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32)930-4047~8



CAFE BERRY

very good

커피·프라페·스무디·빙수·마카롱·스콘·케이크·샌드위치



카페 베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4-5 Tel.010.4781.0518
영업시간 11:00~21:00 화요일 휴무 #강화카페 #루프탑카페

장례 / 장묘 상담

강화 묘지 이장

중앙 장의사



대표 김 군 실 장로

Mobile 010.2668.7766 / 010.7285.775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468-11
TEL 032.933.0012 / 032.934.6780

NAVER 강화묘지이장@

전국묘지 공사 전문업체

개장, 이장, 벌초, 사초 묘지공사 및 석축 보강토 납골묘, 가족묘, 석물일체 군, 구, 묘지 보상 상담

농업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신청안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 2021년 12월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대 상 자 :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기계 면세유 등록자
 3. 신청방법 : 지정 수리점에서 확인서 발급 후(지정수리점 28개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4.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본점 및 분점
 5. 지원내용
 - ① 트랙터·콤바인 15만원, 이앙기 10만원 그 외 기종 5만원 지원
 - ② 농가 당 최고 50만원, 5기종 한도 지원
 - ※ 허위신청시 추후 보조금 제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 032)930-4174~8